

2016년 10월 2일 찾아오신 예수님(7) “안식일의 주인”(요 5:1-18)

[1] 38년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래 앓은 병자에게 ‘나기를 원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무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의도를 갖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돕고자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꼭 병 문제만 아니라, 성품, 안목, 습관, 위기 대처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은 도우실 수 없습니다(성령을 근심케 함).

병자에게 의지는 있었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만 (‘내가 가는 동안’(7 절)) 그것은 치유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비의 치유 능력을 베푸시니까 38년 만에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2] 기적이란 무엇인가?

구원 받은 사람은 자신과 역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습니다. 그 소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 부활생명이 완벽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병이나 상한 마음이나 죄나 소외가 없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미래의 완벽한 생명 나라로부터 지금 현재의 자리로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줄이면, 기적은 미래의 완전한 생명 세계(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시위하는(demonstrate)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는 힘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3] 율법주의의 강력함

치유 후에 이 병자가 안식일에 자기 매트를 들고 성 안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매트를 든 것이 왜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시비를 건 것 같습니다.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렘 17:21-22 “... 안식일에 짐을 지고 ...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느 13 참고)

이런 말씀 안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문자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는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613 가지 상세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몇 km 이상 걸으면 일, 몇 kg 이상 들으면 짐, 등등... 유대인들의 오류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안식일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

- (1)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창조의 가치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출 31:13-17).
- (2)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신 5:15).

이 날은 창조와 구원의 가르침과 축복이 기억되고 새겨지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나 늘 병에 시달리면서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안식일다운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는 창조된 하나님 형상을 누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리기에 병이 심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치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 받았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여졌음에 감사하고 떳떳해야 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짐 들고 다님이 옳지 않다’는 지적에 주눅들어서 치유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문자에 매달리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즉,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보려 하지 않고 율법을 규정들로 꾸몄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참 생명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이 왕성하면 율법주의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생명의 싹과 줄기가 돋고 있는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을 쉽게 누를 수 있습니다.

[4] 율법주의의 씨앗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이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일상 쓰는 용어로 바꾸면 형식주의, 도덕주의, 원칙주의, 완벽주의 입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율법주의는 왜 인간 안에서 쉽게 발생하고 강력하게 기승을 부리고 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쉽게 굴복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치유 받아야 할 내면의 깊은 수치와 죄책을 본능적으로 가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월감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깊은 수치와 죄책을 감추기 위해서 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은 행동에 대한 참회와 함께 수치와 죄책을 어찌할 바 몰라 예수님께 의탁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행동(외면)으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자 없다고 믿으면서 내면의 수치와 깊은 죄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치유에 대한 필요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친해질 수 없었습니다. (9 일 주일 설교에 계속)

<맺음>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으로 치유 받은 병자가 안식일 규정에 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깊이 누림으로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안식일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누리고 있습니까?
2.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도덕주의, 완벽주의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렵게 느껴지면 다음 주일 설교까지 들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 나의 신앙(삶)이 정체되어 있고, 안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 신앙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나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